

<2017년 5월 21일 주일말씀>

미리 해라

본 문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은 ‘**미리 해라.**’ 라는 주제로 말씀하겠습니다.

◎ 섭리사는 2008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시대 십자가를 지면서 10년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섭리역사는 이 기간에
<더 뜨거운 진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성경의 핵심인 <휴거의 비밀>을 알고,
진리와 성령과 회개로 ‘휴거를 미리 준비’ 했습니다.

미리 준비했기에 결국 2015년 3월 16일에
<휴거>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휴거 후 3년째’ 를 보내고 있고,
이제 10년의 십자가 기간이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날에 주를 맞아 잔치하고,
주와 함께 당세의 남은 역사를 이룰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
오늘 미리 하라는 말씀을 전해 줍니다.

못다 한 말씀은 <이번 주 새벽 잠언>으로도 매일 해 주겠습니다.

◎ 그리고 <이번 주 수요말씀>은

정조은 목사 해외 순회 때 준 주의 말씀을 전해 주겠습니다.

조은 목사가 순회 때 전한 말씀을 그대로 녹화해서 전해 줍니다.

주의 욕이 옆에 있다. - 라는 말씀입니다.

<순회를 맞은 나라>는 ‘토요일’에 미리 듣고 성령 받았으니,
이번 주 수요말씀은 교역자가 준비하면 됩니다.

◎ 오늘 주일말씀 ‘**미리 해라.**’

이번 주 해외 순회 말씀 ‘**주의 욕이 옆에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은

2017년 남은 기간을 보내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섭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잡듯 실천해라. 옛것을 장사 지내라.>라는 말씀만큼

정말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 지금부터 ‘**미리 해라.**’ -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시작>

◆ 하나님은 항상 <앞으로 할 역사>를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4000년 구약역사가 끝나기 전>부터

- 이 땅에 <신약의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장시켜 <신약말씀>을 받게 하시고,
- 신약의 정한 때가 다가오니
<세레 요한>을 보내어 메시아의 첩경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 또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과 신약의 후손들은 주가 다시 온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기성은 주가 곧 온다고 더욱 뜨겁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미리

<약속을 이룰 성약역사>를 준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신약역사가 끝나기 55년 전부터

미리 ‘역사의 한 사람’을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가 어릴 때부터 그를 가르치고 키우시고
연단을 시켜 <새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성약역사>를 펴 나가게 하셨습니다.

<새 역사의 세레 요한>은 더 미리 보내어

부활, 재림, 불 심판, 말세를 중심으로 약 30년 동안 외치며
앞으로 올 자의 첩경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역사가 끝나기 전>부터 **약 100년**은

<미리 새 역사를 준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구름같이 많은 자들’이 <새 역사>를 따르며,
<신약의 끝>인 ‘2000년도’를 맞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성경에 “인자는 구름 타고 나타난다.” 한 대로

- <전능하신 성자>께서 ‘그 육신 인구름’ 을 타고 다시 오셨고,
- 그 육과 함께 ‘믿고 따르는 인구름’ 을 타고 오셨습니다.

- ◆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때>에 맞춰 정녕코 행하여 뜻을 이루십니다.

- ◆ 새벽 1시에 일찍 일어나려면, ‘미리’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새벽 1시에 일어나기 위해 미리 할 일>은
바로 ‘전날 일찍 자는 것’ 입니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도 미리 할 일을 하며 준비해 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약의 새 역사>도 ‘신약역사가 끝나기 전’ 부터
미리 할 일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 ◆ <계절>이 ‘미리’ 겹쳐서 옵니다.
<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여름’ 이 겹쳐서 오지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메시아>도 ‘미리’ 와서 행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역사>도 ‘미리’ 진행됩니다.

- ◆ 가령 2000년이 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한다고 예언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미 25~30년 전에 신랑과 신부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2000년도에 맞춰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성약의 새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구원자’ 가 태어나게 하시고,

배우며 성장하고 연단받게 하셨습니다. 미리 하셨습니다.

- ◆ 내년에 결혼식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올해부터 집을 장만하고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고 합시다.

미리 약 1년 전에 임신하고 배 속에서 키워야

때에 맞춰 아기를 낳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개인·민족·세계·역사의 일>을 하실 때
미리 준비하고 시작하십니다.

- ◆ 미리 하지 않으면 ‘기다리는 자와 하나님의 역사’를 맞지 못합니다.
미리 하지 않으면 ‘그 날과 그 때’를 맞지 못합니다.

예수님 때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시대의 잠을 자다가 ‘주’를 맞지 못했습니다.

<신약의 새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깨어 있던 자들>만
당세에 ‘주’를 맞고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 ◆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미리 하지 않으면,

<새 역사>가 왔어도 ‘시대의 눈’이 안 떠져서
절대 ‘새 역사’를 맞지 못합니다.

미리 하지 않으니, ‘정한 때’를 맞춰서 행하지 못합니다.

<시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미리 준비한 자들>만 ‘주’를 맞았고,
<휴거의 진리와 성령을 받고 미리 준비한 자들>만 ‘휴거’했습니다.

<앞으로 올 그 때>도 ‘미리 준비한 자들’만 제대로 맞게 됩니다.

시대 말씀을 알고 미리 해야 ‘그 날과 그 때’를 맞게 됩니다.

시대 말씀을 알고 미리 해야 ‘기다리던 자’를 맞게 됩니다.

시대 말씀을 알고 미리 해야 ‘성공’하고 ‘승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만사의 모든 것들은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안 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실패합니다.

미리 하면, 안 될 것도 되고 성공합니다.

- ◆ 100m 경주를 한다고 합시다.

미리 출발할 준비를 했다가,

출발하라는 신호음이 들리면 제시간에 딱 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승패가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실력이 있는 자>라도 미리 연습을 해 놓지 않으면,

경주할 때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 ◆ <유능한 자>라도 ‘미리 하는 자’에게는 패합니다.

- ◆ 미리 하면,

어린아이라도 세계에서 최고로 빨리 달리는 선수를 이깁니다.

<미리 하는 것>이 이같이 ‘운명을 좌우’합니다.

◆ 전쟁 때도 ‘미리 선수를 친 자’가 성공합니다.

◆ 미리 하면 ‘시간의 승리’를 하니, 성공하게 됩니다.

◆ 미리 하면 쉽습니다. 미리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먼 길을 갈 때도 **미리 떠나면** 여유 있고 힘들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 신앙생활도 최대한 **어릴 때 미리** 해야 됩니다.

커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자꾸 ‘자기 경험과 육성’으로 가니 힘듭니다.

고로 전도도 ‘중학생, 고등학생 때 미리’ 해야 됩니다.

어리니 ‘주의 말씀’이 쑥~ 잘 들어가고,
자기 경험이나 주관이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라서
보다 ‘주의 생각’이 잘 들어갑니다.

◆ 운동선수도 보세요.

다 커서 하면 늦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리** 해야 됩니다.

◆ 교역자들도 설교를 은혜롭게 성령으로 하려면,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교역자들은 예배 때도 **미리** 제일 먼저 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때 늦게 오는 교역자는

늦게 하는 버릇이 들고, 게으르고, 미리 하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 ◆ 행사도, 예배도, 모임도, 그 어떤 일도
미리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예배 전에 미리 설교 준비, 미리 기도 준비, 미리 찬양 준비,
미리 성가대 준비입니다. 예배 시간보다 미리 와서 준비해야 됩니다.

행사 전에 미리 사회 준비, 미리 예술제 준비,
미리 갖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큰일〉일수록 ‘미리’ 해야 됩니다.

- ◆ 건강도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챙겨야 됩니다.

미리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암이 생겼어도 미리 검진해서 찾아내기만 하면, 거의 삽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병이 생기면, 기도해서 나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병원에 늦게 가서 병을 키웁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고 〈병원〉에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어 〈의학〉이 발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의사〉를 쓰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야 가장 쉽게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미리미리 병원에 가서 검진받고

의사의 손을 통해서 쉽게 병을 고쳐야 됩니다.

〈약〉을 써도, 〈병원〉에 가도

역시 ‘하나님의 손’ 이 함께 가서 치료해 줍니다.

- ◆ 선생도 아플 때, 낮게 해 달라고 수천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묻기를 “무슨 뜻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무슨 아픈 뜻이 네게 있냐?

병원에도 가고 약도 먹으면서 의학으로 해라.

그래서 이미 <의학>을 준비해 놓았다.” 하셨습니다.

- ◆ 아픈 것도, 어떤 일도 ‘기도해서 되지만’ 을 막연히 기다립니다.

그렇게만 하다가는

- 병으로 죽기도 하고,
- 하는 일이 안 되기도 하고,
-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뺏기기도 합니다.

- ◆ 배고픈데 기도만 한다고 배부릅니까? 먹어야 해결됩니다.

이를 깨닫고 <자기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지 말고,
본인이 미리부터 해야 됩니다.

<자기 할 일>을 미루면 ‘실패할 일’ 만 남고,
<병 치료>를 미루면 ‘죽는 길’ 만 남습니다.

<기도>도 하면서, 미리 <할 일>도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 ◆ 미리 하면, 사탄도 조건을 못 붙입니다.

심판 전에 미리 회개하니, 사탄이 조건을 못 붙입니다.

사탄이 막기 전에 미리 행하니, 사탄이 막지 못합니다.

- ◆ <미리 하는 것>이 ‘정녕코 이루고야 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항상 <앞날의 할 일>과 <앞날의 때>를 두고 미리 해야
승리하고, 성공하고, 희망의 때를 맞고, 하나님도 주도 맞게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지금부터는 <미리 하는 자>는 어떤 자인지 말씀해 주겠습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먼저 발견하고 캐는 자와 같습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땅값, 집값, 물건 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는 자와 같습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쳐 급물살이 치기 전에
물이 무릎 높이만큼 흐를 때 지나가는 자와 같습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뱀과 짐승들이 잡아먹으러 오기 전에
미리 그 장소를 떠나는 자와 같습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전쟁 때 적군들이 분노하여 죽이려고 오기 전에
미리 그 자리를 떠나서 100리나 멀리 가는 자와 같습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홍수로 댐이 터지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자와 같습니다.

◆ <미리 하는 자>는

중병이 시작될 때 병원에 가서
수술하여 간단히 없애 버리는 자와 같습니다.

◆ <미리 하는 자>는

자기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죽음의 처지를 당하기 전에
미리 해결해 주는 자와 같습니다.

◆ <미리 하는 자>는

하루 한 번 천 리를 가는 배나 차를 타려고
30분, 한 시간 전에 미리 가서 타고 있는 자와 같습니다.

◆ <미리 하는 자>는

산사태가 나기 전에 산 밑에서 미리 이사 가는 자와 같습니다.

◆ <미리 하는 자>는

살인강도가 자기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알고 경찰을 불러 숨어 있다가 잡는 자와 같습니다.

◆ <미리 하는 자>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전에 내리는 자와 같습니다.

◆ <미리 하는 자>는

적이 총을 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미리 바위 뒤로 피하고 공격하는 자와 같습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폭력배가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미리 알고 화장실에 갔다가 도망쳐서 피한 자와 같습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죄로 심판받기 전에 미리 회개하여 심판을 피하는 자와 같습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화재가 나기 전에 그곳에서 나와 피한 자와 같습니다.

- ◆ 열차가 오기 전에 미리 건널목을 건너야,
 열차가 지나가도 안전합니다.

 이와 같이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방지하기’입니다.
 - 환난이 오기 전에 주와 완전히 일체 되고,
 - 환난이 오기 전에 섭리사를 음해하며 악평하는 자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미리 기도하여 물리쳐 달라고 해야 됩니다.

- ◆ 미리 안 해서 피할 것을 못 피해서
 사고가 나거나 죽고 억울함을 당하게 됩니다.

- ◆ <만사의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며 하는 자>는
죽음도, 화도, 사고도, 각종 고통도 피하게 됩니다.

- ◆ 판국이 기울어지기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미리 하는 자>는 ‘신의 지혜를 받은 자’ 입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최고 지혜롭고 현명한 자’ 입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최고로 빨리하는 자’ 입니다.
어린아이라도 미리 하면 최고로 빨리합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성공하는 자’ 입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인간으로서 신의 경지에 사는 자’ 입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인간으로서 그 면의 신 같은 자’ 입니다.
- ◆ <미리 하는 자>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차지’ 합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신의 축복의 길로 가는 자’ 입니다.
- ◆ <미리 하는 자>가 ‘제때’ 를 지키게 됩니다.
- ◆ <미리 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차지’ 합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원하던 것을 얻고 기뻐 잔치’ 합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1000분의 1의 수고를 하고 문제를 해결’ 합니다.
- ◆ <미리 하는 자>는 ‘화나 해를 당하기 전’ 에 피하고 빠져나옵니다.

- ◆ 시계 배터리가 떨어지면 힘이 없어서 시계가 천천히 가다가, 결국 멈춰서 죽어 버립니다. 생명들도 그러합니다.

이와 같이 ‘**생명도 넘어지기 전에 미리 관리**’입니다.

- ◆ 화장실도 신호가 살짝 왔을 때 미리 출발하지 않으면 가다가 너무 급해서 배설해 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리 하지 않는 자>는 **창피**와 **망신**을 당합니다.

- ◆ 신호등도 보면, 미리 서라고 노란불이 들어옵니다. 이를 무시하고 썸~ 달리다가는 사고 납니다.

이와 같이 <미리 하지 않는 자>는 **사고**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합니다.

- ◆ 성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뺏깁니다.

이와 같이 <미리 하지 않는 자>는 **뺏깁니다**.

- ◆ 홍수가 났는데 허리까지 물이 찰 때까지 안 피하면 급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이와 같이 <미리 하지 않는 자>는 **황천길**까지 갑니다.

- ◆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미리 하는 자>는

짐승이 오기 전에 큰 돌을 가지고 미리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나무 밑으로 오면 큰 돌로 때려서 쓰러뜨린다.

<미리 피하지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는
짐승에게 물리고 싸워야 된다. (그림1)

이와 같이 <미리 하는 자>는
해를 주는 자들이나 악평하는 자들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여 물리친다.

<미리 하는 자>는 먼저 높은 곳에 올라 승리를 만끽한다.

<미리 하는 자>는 먼 길도 충분히 여유 있게 가서
시간의 승리를 하고 목적을 이루고 성공한다. (그림2) <끝>

생각났을 때 미리 해라.

미리 했으면 쉬웠다.

미리 안 해서 그리 어렵게 되고 못 하게 된 것이다.

미리 안 해서 문제도 터지고, 화도 당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아라.

미리 안 해서 못 받는 것이 그리 많다.

큰일도 미리 하면 할 수 있다.

미리 하면 다른 길이 있으니 목매지 않게 된다.

<미리 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 ‘매일 기도’ 하여라.”

- ◆ 하나님은 <인간의 영>뿐만 아니라
<육>도 구원하고 잘되게 해 주시려고,
<구원자>를 통해 ‘구원받는 방법, 잘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며

<구원의 길, 형통의 길, 축복의 길, 잘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 ◆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 미리 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님은 미리 하라고 감동을 주십니다. 그때 해야 됩니다!
- ◆ 매일 <미리 하는 전술과 비법>을 가지고 미리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 <성약역사>도 미리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휴거>도 미리 준비하고 했습니다.

이제 <섭리역사 당세의 남은 한 때>가 있습니다.

<그 날>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다.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며 할 일을 한 자>만

- 그 날에 주를 맞고 기뻐 잔치하며
- 당세의 남은 한 때에 주와 함께 역사를 이룰 주인공입니다.

- ◆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 ‘미리 해라’ 싸인>

“미리 해라. 나 여호와와는 생각보다 미리 한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라.

* (미리 해라) 먼저 전해 주고, 다음 문장들 읽을 때도 화면에 계속 싸인 띄워 놓는다.

미리 해라. 이것이 ‘침단의 지혜’ 나라.” <끝>

◎ 말씀 마쳤습니다.

<미리 해라 - 새로운 노래>

◎ 이 말씀을 받으면서 ‘노래 한 곡’ 을 또 지었습니다.

곡은 나중에 보내고,

오늘은 <1차로 지은 가사>만 시처럼 읊어 주고 마치겠습니다.

미리 해라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미리부터 뛰고 실천하라

시간 죽지 표적의 삶이다

하나님도 미리부터 행하신다
성령님도 미리 감동을 주신다

큰일도 걱정하지 말고
부지런히 미리만 하여라

미리 하면 불가능이 없다
미리 하면 죽음도 피해 산다

모든 만사 주와 같이 미리 하기도

걱정 근심 사라져 버리고
주와 같이 기뻐 잔치한다

낮이 가면 밤이 돌아온다
미리 하여 네 운명 뒤바뀌라

미리 해야 시대 때를 좇으며
성공 승리 기쁨의 노래 한다

희망 사랑 행복한 삶이다
미리 해야 축복의 삶이다